

CREATION

TRUTH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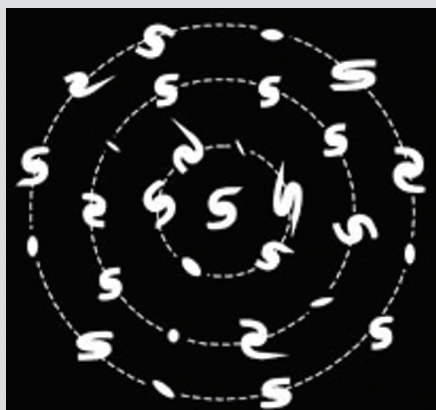
시간의 팽창과 정지(6)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중력장에 관한 방정식들은 매우 비선형 (nonlinear)적이기 때문에 직접 해(solution)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방정식들의 정확한 근사해를 구하는 것이 천문우주학의 관건이다. 여기서 중력장에 관한 방정식의 해를 시공 메트릭(metrics of spacetime)이라 하는데 이 메트릭은 시공에 있는 물체의 관성운동뿐만 아니라 시공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난 칼럼들을 통하여 험프리 교수가 제안한 메트릭을 통하여 공간과 시간의 팽창에 대한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을 소개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빛들을 지구에서 수 천년의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새로운 메트릭에 의거한 천문우주 모델을 설명해 왔다.^{1,2} 이번 마지막 칼럼에서는 시간의 팽창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들을 다루려고 한다.

시간의 팽창에 관한 독립적인 증거

험프리 교수는 지구시간 보다 우주시간이 더욱 빠르게 흘러왔다는 그의 이론을 지지하는 독립적인 증거들을 직접 탐구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지르콘(Zircon) 속에 들어있는 헬륨의 확산 속도에 의한 나이 측정이다. 화강암(granite) 내에는 미세한 지르콘(zircon)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작은 지르콘 속에는 헬륨가스가 존재한다. 그는 이 헬륨이 지르콘을 빠져나가는 속도를 바탕으로 나이를 계산한 것과 우라늄-납 붕괴속도에 바탕을 둔 계산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라늄-납 붕괴속도에 바탕을 둔 나이는 45억년이었다(역자주: 이는 일반 세속 과학자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즉 그들이 추정하는 초기 값과 붕괴속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연대임). 그러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동심원으로 분포되어 있는 별과 은하들

지르콘 속으로부터 나오는 헬륨에 의한 나이는 6000년 (+ 2000년의 오차)에 불과함을 발견하였다.³ (역자 주: 한 개의 지르콘에 두 가지의 시간이 사실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일 수 없다. 그런데 우라늄-납 붕괴 과정이 급가속 되었다면 두 가지 시간 측정이 모두 설명 될 수 있다.)

빅뱅우주론에서는 우주 공간의 팽창이 우주의 한 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풍선같은 구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별들과 은하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 험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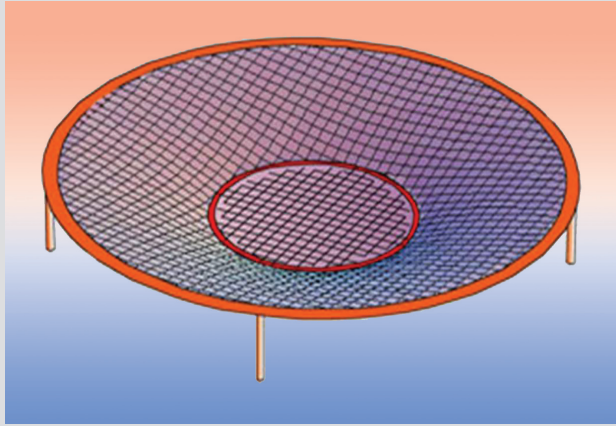
교수는 우주 공간을 통한 별들과 은하들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별과 은하들이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를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동심원(quantized concentric shells)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⁴ 우주에 우연히 그와 같은 특별한 위치에 지구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은 수학적인 확률로 1조분의 1에 불과하다. 빅뱅이론에서는 우주가 어떤 특별한 위치와 유일한 중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계속 다른 해석과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별과 은하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사실은 빅뱅 가설을 부정하면서 시간팽창이 만들어 내는 무시간 영역을 말하는 험프리 교수의 해(solution)를 지지하고 있다. 무시간 영역은 (역자 주: 마치 지르콘 속에서 6000년의 헬륨 시간과 우라늄-납이 45억년에 비하면 무시간처럼 보이듯이) 지구시간과 우주시간을 조화시킬 수 있게 한다.

험프리 교수가 지금 발표하는 이 모델을 확신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태양계 밖으로 나가고 있는 파니오니아 10호와 11호를 비롯한 우주선들이 비정상적인 속도를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NASA의 과학자들은 멀리 멀어져 가는 이 우주선들이 예상과는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관찰해 왔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이론들이 제안되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현상을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파이 오니아 효과(Pioneer effect)라고 부른다.⁵

그런데 이 수수께끼 문제는 험프리 박사의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을 통하여 깨끗이 설명이 된다. 만일 하나의 거대한 부피의 빈 공간이 우주의 물질로 둘러 싸여 있다면, 그래서 물질의 중심이 있다면, 그 물질은 하나의 깊은 중력장의 포텐셜 우물(gravitational potential well)을 갖게 된다. 이는 이전에 트램폴린의 비유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공을 상징하는 트램폴린 위에 거대한 중력이 만들어 내는 텐트(움푹 들어간 우물)와 같다. 만일 하나님이 장력을 높여서 그 우주 공간이 확장되고 그 물질이 외부로 퍼져나간다면 그 중력장의 우물의 깊이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한 험프리 교수의 해에 따르면 줄어드는 그 우물의 깊이는, 우물 안에 있는 레이더로 측정될 때, 그 깊이가 계속 해서 짧아지고 그 효과로 가속되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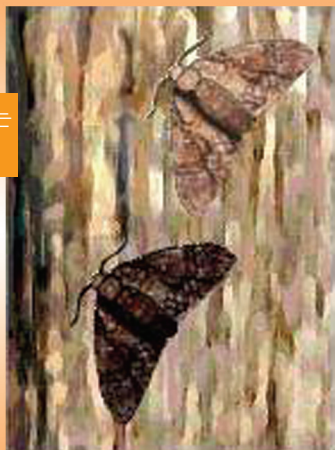
가속의 크기는 중력포텐셜(중력장의 한 지점에서 단위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 우물의 밑부분이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을 드러내는 임계깊이(Critical potential) 위로 아직 올라 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즉, 아직까지 시간팽창 효과를 보이고 있어 기대했던 속도와 다른 속도가 관찰 되게 된다). 따라서 파이오니아 효과는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론의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지지하고 있다. - 즉 물질의 중심, 우주의 팽창, 최근의 시간팽창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 물질의 중심이 없다는 빅뱅이론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불가한 것이다.(끝)

번역·정리 / 이동용 박사 항공기제공학

참고문헌

1. Vardiman, L. and Humphreys, D.R. 2011, A New Creationist Cosmology: No Time at All, Acts & Facts, 39 (Part 1, 2010) and 40 (Part 2, 2011).
2.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2(3): 84-92
3. Humphreys, D.R., 2005, Young Helium Diffusion Age of Zircons Supports Accelerated Nuclear Decay. In Radioisotopes and the Age of the Earth: Results of a Young-Earth Creationist Research Initiative, Vol. 2.
4. Humphreys, D.R., 2002, Our galaxy is the centre of the universe, "quantized" red shifts show, Journal of Creation, 16(2): 95-104.
5. Humphreys, D.R., 2007, Creationist cosmologies explain the anomalous acceleration of Pioneer spacecraft, Journal of Creation, 21(2): v61-70.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론(3)



후추나방과 자연선택

교과서의 진화단원에 사진과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후추나방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후추나방은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나방으로 구분되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무 색깔이 밝았기 때문에 밝은 색 나방이 새로부터 보호받아 숫자가 많았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해로 말미암아 나무 색깔이 어두워지므로 새로부터 어두운 색 나방이 보호받게 되어 어두운 색 나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기 아닌가? 그러나 내막을 들춰보면 이 내용이 아직도 교과서에 남아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화론자인 케틀 웰이란 사람이 새는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나방을 우선으로 잡는다는 것을 관찰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그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방의 사진까지 제시하며, 1955년에 논문을 발표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은 180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는 산업혁명 때 살던 나방의 이야기가 아닌란 점이다!

또한 나중에 나방은 밤에, 새는 낮에 활동하므로 서로 활동시간이 달라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나방 사진도 나무 위에 접착제로 붙여 찍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에 실린 그림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후추나방은 교과서에서 보여주듯이 두 극단

적인 색깔만이 아니라 전 범위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관찰을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다. 이 논문에 대한 반론은 발표 당시부터 여러 과학자에 의해 이어졌으며, 결국 논문내용과 실제 나방의 분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것도 밝혀졌다. 이미 가장 유명한 논문지인 내이처지의 저자를 포함해서 여러 과학자들은 이미 이 후추나방 이야기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 실험은 결과를 먼저 예상하고, 그 예상된 결과대로 방법을 유도한 조작실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자연선택’이 진화의 과정이라는 다윈의 생각을 지지하며 인기를 끌며 아직까지 각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논문의 조작내용을 떠나서 과연 자연선택이 진화의 과정일까? 나방 숫자가 변했다고 해서 밝은 나방이 어두운 나방으로 진화했는가? 아니다. 단지 후추나방이라는 종류의 변화 없이 나방의 ‘수(number)’만 바뀐 것이다. 진화란 엄밀히 말해 그 생물의 종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선택으로 나방의 종류가 바뀐 어떤 결과도 없다. 어떤 생물의 보호 받는 형태가 살아남는다는 자연선택은 맞는 말이다. 이는 창조과학자와 진화론 과학자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자연선택이 종류를 변화시켜서 진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후추나방 이야기는 조작된 내용일 뿐 아니라 어떤 진화의 예도 될 수 없다. 후추나방도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것들을 창조하신 다섯째 날 “종류대로” 창조된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창 1:21).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큰
생일에
창조주자를
위조하는
방법





유채와 수박

한국 관광지의 대표적인 제주의 사진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푸른 바다와 깨끗한 하늘과 어우러진 샛노란 유채꽃 들판이다. 유채는 꽃만 예쁜 것이 아니라 채종유라는 식용유 기름으로도 유명하다. 이 씨에서 나온 지방은 의약품 성분을 섞어 연고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유채 나물도 내 기억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 중에 하나다. 뿐만 아니라 유채꽃은 벌들에게 꿀을 제공하는 중요한 밀원의 하나다. 이렇게 유용한 유채도 하나님께서 창조 3일째에 만드셨을까?

성경에는 유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것과 깊은 관계에 있는 식물이 겨자다. 겨자(mustard), 유채(rape), 배추(turnip) 그리고 양배추(cabbage)는 모두 '십자화과 혹은 배추과(十字花科, Cruciferae or Brassicaceae family)'에 속한 2년생 식물들이다. 이들은 겨울이 지난 다음 꽃이 피는데 4장의 꽃 잎이 열 십자(+)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화과라고 부른다. 이들의 수술은 6개인데 그 중에 4개는 길고 2개는 짧다. 그런데 이들의 염색체 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배추의 염색체 수는 20개이고 양배추는 18개다. 그런데 유채의 염색체 수는 38개로 배추의 염색체와 양배추의 염색체 모두를 합한 수와 같다. 또 배추과에 속한 겨자(*Brassica nigra*)의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16개인데 이 식물과 비슷한 인도 겨자(*Brassica juncea*)는 배추(20개)와 겨자(16개)의 염색체를 모두 합한 것과 같은 3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이디오피아 겨자(*Brassica carinata*)는 양배추(18개)와 겨자(16개)를 합한 것처럼 3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 관계들이 우연한 것 같지가 않다.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든 분은 아니지만 씨 없는 수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육종학자 우장훈 박사는 이들 관계 중에 하나를 교배 실험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1935년).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하여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38개의 염색체를 가진 유채와 똑 같은 유채를 만든 것이

다. 이 관찰과 실험을 기반으로 유채, 인도 겨자, 이디오피아 겨자는 원래 조상인 배추, 양배추, 겨자(를)가 서로 교잡되어 만들어 진 새로운 종(species)들이란 이론이 만들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종류(히브리어로 min)는 한계를 가졌다, 즉 교배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성질이 비슷한 배추, 양배추, 겨자가 원래 한 종류였기 때문에 서로 교잡이 가능한지 아니면 원래 다른 종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서로 교잡 되도록 허용하셨는지는 아직 대답하기 이르다.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보다 교배의 폭이 훨씬 넓어 여러가지 유용한 잡종(hybrid)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유채와 달리 씨 없는 수박은 염색체수가 보통 수박(염색체 수 $2n$)보다 1.5 배가 많은 $3n$ 으로 되어 있다.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식물들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먼저 보통 수박($2n$)의 암술에 colchicines (콜히친)이란 식물의 독성 성분을 처리하는데 이 독성 물질은 세포 분열이 일어 날 때 새로운 세포로 염색체들을 끌어들이는 방추사에 붙어 그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그 결과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4n$ 인 수박 씨가 만들어지는데 이 수박도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음 해 이 $4n$ 의 수박 씨와 정상적인 $2n$ 의 수박 씨를 함께 심으면 서로 교배가 되어 $3n$ 의 염색체를 가진 수박 씨가 맺히게 된다. 이제 이 $3n$ 의 수박 씨는 씨 없는 수박을 맺게 되는데 씨가 여물지 않으므로 $3n$ 의 수박 씨는 매 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유채도, 인도 겨자도, 이디오피아 겨자도, 그리고 씨 없는 수박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채건 수박이건 그 어느 경우에도 새로운 것이 창조 된 것이 아니다. 혹자는 원래 조상이 계속 변하면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유전정보의 한계 안에서만 변할 수 있을 뿐이다. 앞에서 예를 든 모든 식물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연에서 혹은 사람들이 합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합해지는 능력을 처음부터 넣어 놓지 않으셨으면 유채 같은 유일한 새로운 식물은 탄생 될 수 없다. 또, 수박 염색체를 아무리 많이 합쳐도 절대로 사과나무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과나무에 꼭 필요한 유전자는 수박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 3일째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 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 하심으로써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식물들을 먹거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음 만드신 식물들이 더 다양해져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지도 모른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 하신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복음 10:10)



최우성 박사
생리학

ACT News

세미나 /
창조과학탐사여행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5월 주님의 영광교회(16-18일, 담임목사 신승훈), 시애틀 형제교회(5월 30일-6월 2일)에서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남가주 노회 국제총회(23-25일, 노회장 안동주)는 Death Valley 중심으로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두 교회는 이미 여러 번의 탐사여행을 가졌으며, 노회 목사님들은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에 대한 기쁨뿐 아니라, 2세들을 위한 탐사여행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주님의영광교회
탐사여행

세미나

‘빙하시대이야기’ 저자 세미나

지난 5월 9-10일 이재만 부회장과 최우성 박사는 두란노에서 주최하는 저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 출판된 ‘빙하시대 이야기’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빙하시대 이야기는 노아홍수 이후부터 바벨탑을 지나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뿐 아니라 성경적 증거 특별히 읊기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아홍수가 전지구적인 사건임으로 그 증거가 뛰어나지만, 빙하시대는 더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재 모습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교회 세미나

이재만 부회장은 산호세 새소망 교회(5월 13-15일, 담임 목사 윤각춘)와 뉴저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5월 20-22일, 담임목사 소재신)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창조사역 집중훈련 ITCM

창조과학사역 집중훈련 프로그램인 ITCM-1을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한국 한동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총 5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그 중에 한 ITCM-1 제 2 기생으로서 창조과학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TCM-1 진행의 보조 사역자로 참



시애틀형제교회 탐사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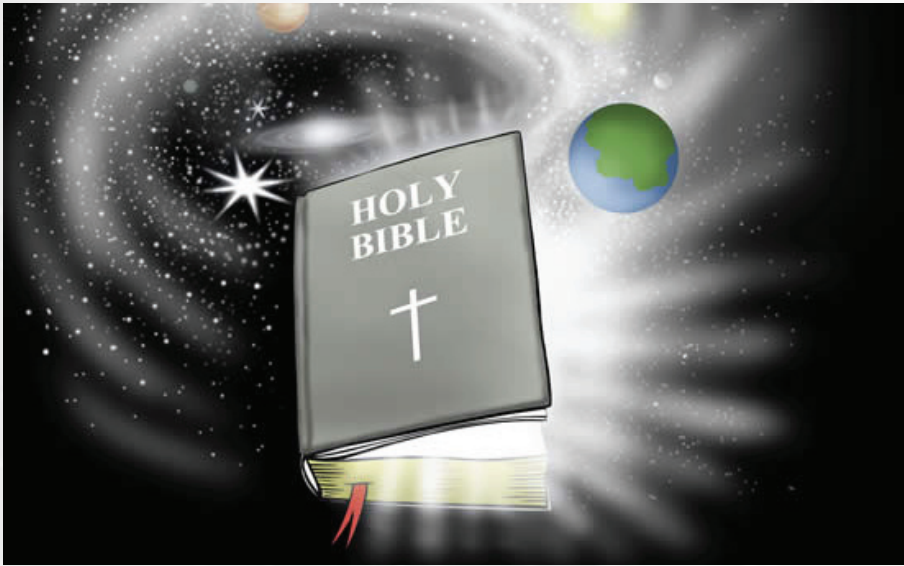


남가주노회 국제총회 빙하시대 탐사여행 중 Alabama Hills에서

석하게 됩니다. 이 훈련생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훈련 할 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잘 준비 된 사역자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9 기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7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10 주간의 창조과학학교 프로그램이 시작 됩니다. 매주 주일 2:00부터 4:00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회에서는 황희남 집사님에게, 교회 밖에서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젊은지구 창조론자라 부르지 마세요!

“전 젊은지구 창조론자입니다.”

진화론자에게 이 말은 “전 반과학적 신비주의자입니다”라고 들릴 것이다. 또, 자연주의적인 전제를 가진 타협한 크리스천에게 젊은지구 창조론자는 지구의 시작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견해일 뿐이다. 동일과정설적인 견해를 가진 많은 크리스천들은 날-시대 이론, 간격 이론, 구조 가설 같은 것을 창세기의 이론으로 끌어 들인다. 점진적 창조론자, 유신론적 진화론자, 심지어 젊은 지구 창조론자 등의 이름을 들먹이는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1-11장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한다.

우리가 “젊은지구 창조론자”란 이름을 붙이면, 단순히 지구의 나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는 화석기록, 방사성동위원소 측정법, 천체들이 젊은 혹은 오랜 지구의 증거인지의 논쟁에 붙잡히게 된다.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점은 증거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를 설명하는 출발점에 대한 것이다. 그 출발점이 오류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오류가 없는 성경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젊은지구 창조론자”란 이름을 자기의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성경적인 창조론자입니다.”

이 이름이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두 가지 출발점이 있다: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 말씀. 창조를 타협하는 여러 입장들은 오랜 연대를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자기의 출발점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자들의 동일과정설적인 믿음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게 된다.

창세기의 6일을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으로 늘리려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왜곡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권위를 해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보다 해석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본문이 되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고 반역한 것을 통해 죽음과 파과가 들어 왔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바꾼 것에 대해 엄중한 결과들의 부과 하신다(잠언 30:5-6; 요한계시록 22:18-19).

반면에, 성경적인 창조론자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시작한다. 겸손하게 성경에 접근하고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그 기록을 신뢰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짧은지구 창조론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짧은지구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현 되었다. 켄 햄이 말했듯이, “성경을 단순히 문맥에 따라 받아 드리면, 일상적인 날들, 죄 이전에 죽음 없음, 성경의 족보 등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받아드릴 수가 없다.”

성경의 짧은지구 관점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을 짧은지구 창조론자라고 이름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 이름이 정확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짧은지구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솔직한 성경 해석이 짧은지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증거들이 어떻게 짧은지구 견해를 갖도록 보여주는 일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절대적인 목표는 지구가 짧다는 증거들을 통해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성경의 기초가 되는 처음 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는 나머지 성경에서 생명을 주는 진리들을 설명하는 토대를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answersingenesis.org>

GMU 대학 탐사여행

April 18-20, 2011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은 “진화론” 이었다. ... 항상 넘어야 할 (부담) 숙제였다. ...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지긋지긋한 진화론을 깨끗이 청소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양소연/은혜한인교회

창조론을 믿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머리 속은 복잡한 상태로 살아 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과 의문점이 많이 풀렸고 머리 속에서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다. -류진웅/은혜한인교회

2년 전에 배운 것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새로운 것을 들었습니다... 탐사여행의 깨우침의 지속을 위해 follow up care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호영

이번 투어로 확실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증거해주는 증인을 만나서 더욱 저도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이성명, 이병희 목사

창조, 노아홍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정말 dear하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김지선

믿음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탐사여행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배울 때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유한나

창조과학 탐사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을 사실을 사실로 증명해 주시고...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이 세미나 지속되기를... -김설화

이번 여행을 통해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음을 확신합니다. - 문기훈

공부하면서 (특히 노아홍수)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몰랐던 것 궁금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돌아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여행입니다. -최수영

그동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나의 속내를 들여

다 보여주는 시간들이었다. -이혜영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안산동산교회 탐사여행 (4/25-4/28/2011)

지구의 나이, 화석의 연대 등 창조와 불합치하는 것들과의 괴리로 인한 의심이 있었지만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확신하게 되어 좋았다. -김영철 장로

정말 놀라움과 두려움, 말 못할 기쁨과 희열, 소망이 새로워졌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은 하나님 진노하심의 현상이었습니다. 진노의 현상이 이러했거든 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상상을 불러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홍순동 장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셨기에 그냥 말씀만으로 의심없이 믿고있는 나로서는 봄으로써 더욱 확실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내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 -박경화 권사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과 미미한 존재로 인식하던 “나”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의 사역수행에 크나큰 용기와 자신을 얻게 되었다. -노규리 장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볼 수 있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더욱 자랑스럽고 확신으로 다가왔다. -박영숙 권사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말씀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과의 상충으로 인하여 많은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것이 해결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upgrade되었으며 ... -하인재 장로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성경의 신묘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에 이런 증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킬 수 없을까도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기독교계의 위급함이 이 천지창조 과학탐사를 통해 해결되어 다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가 회복되길 바란다. -윤석웅 장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자가 돼야겠다는 마음과, 이 창조신앙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갖고 사역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교회 내 청소년, 젊은이, 주일학교에 이 창조과학이 잘 사역되고 '진화론'에 타협하지 않도록 더욱 2세 교육에 힘써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재순 사모

2011년 ACT Schedule

- 7/3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7/4-7 일본 리더쉽 (이재만), LA, CA
 7/10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213-381-1390), CA
 7/10 LA 사랑의교회 (최우성), LA, CA
 7/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 브레이크, 213-381-1390)
 7/16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최우성)
 7/17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213-381-1390), CA
 7/17 LA 사랑의교회 (최우성), LA, CA
 7/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7/24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213-381-1390), CA
 7/24 LA 사랑의교회 (최우성), LA, CA
 7/25-27 빙하시대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381-1390)
 7/30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 EM(최우성)
 7/3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7/31 LA 사랑의교회 (이재만), LA, CA
- 8/7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8/7 LA 사랑의교회 (이재만), LA, CA
 8/8-12 미주장신대 (최우성), Santa Fe Springs, CA
 8/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연합, 종교교회, 교사팀, 목동지구촌교회,
 담당자: 이성호집사 010-2221-8855 한국 or 213-381-1390 미국)
 8/12-14 좋은씨앗 교회 (이재만) (PA)
 8/13 샌디에고 탐사여행 창조과학학교(최우성)
 8/14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8/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은혜의 빛 장로교회, 925-639-0474)
 8/2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213-381-1390), CA
 8/21-27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8/28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213-381-1390), CA
 8/29-31 빙하시대 탐사여행 (샌디에고 출발)
- 9/3-5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